

Made in Korea
Made in

Ansan

냉동 공조

산업용 환경계측감지와 제어장치 개발 생산

(주)두텍(DOTECH, INC)

Products



냉동, 냉장, 항온 향습기, 공조기, 공기압축기, 히트펌프 등 산업용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제어장치 및 온도, 습도, 차압, CO₂등의 센서를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는 (주)두텍(최득남 대표이사)을 찾았다.

두텍은 반도체 및 LCD, 전자제품, 제약, 식품 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공정 관리에 필수요소인 환경계측과 제어분야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산업용 항온항습 장비와 대형 선박 제습장비용 온·습도 변환기 제품군의 자체개발 생산을 기반으로 해외 선진기술에 의존해 오던 국내 환경계측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해 환경계측감지 제어장치 산업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흔을 심는 마음으로 2001년 설립 이래, 냉동 공조 및 클린룸 분야의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두텍.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고 있는 두텍은 우수한 기술축적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간다는 각오 아래 최고의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창업 이래 줄곧 매출과 시장점유 보다는 품질과 기술 분야의 발전에 집중하며 품질과 창조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결과다.

2001년 창립 당시는 국내 환경계측 분야시장이 불모지와 같아 해외 선진 기술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에 두텍은 국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산업용 항온항습 장비와 대형선박 제습장비용 온·습도 변환기 제품군의 자체 개발 생산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기술경쟁력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최고 위상의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LCD와 제약(K)GMP,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산업의 품질 향상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요구에 대응하는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그간 해외 선진 기술에 의존해 오던 국내 환경계측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춰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중화권과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시장 등의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모션(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지사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HMX 350 Series

HMX 350 Series는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용이하다. HMX 350은 상대습도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습도, 노점온도, 앤탈피, 건구온도, 습구온도, 수증기 분압, 수증기포화압력, 혼합비, 수분활성도 등 다양한 수분 데이터도 측정이 가능하다. 표시부에는 산업용 환경에 적합한 VFD 모듈을 채택해 안정성을 갖추었다.



HTX 99R Series

HTX 99R Series는 고온, 고습을 주로 사용하는 연구(실험)용 환경챔버와 식약품 및 섬유 건조 프로세스의 온·습도 계측에 적합한 모델이다. 특별히 적용된 고온고습용 습도소자는 온도 보상을 통해 폭넓은 범위에서 균일한 특성과 정밀도를 구현한다. 또한 RS485통신 기능을 통해 제어 및 감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해 정확한 제어와 효율적인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손쉬운 결선과 서비스를 위해 프러그 인 터미널 블록이 적용되며 항온항습 챔버 제조업체들을 위한 OEM 모델도 공급이 가능하다.

인터뷰

제품의 주요 수행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과제 수행(산업자원부), LG-CNS 상암동 사옥, 전산실 항온항습 제어시스템 수행, 삼성SDI, 삼성전기,(주) 기린 클린룸제어시스템 수행, 신세계 푸드, 나주축협, 서산농협, 홈에버(수원) 저온 냉동 창고 제어시스템 수행 등의 경력이 있다.

향후 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각오는?

국내 시장에서 확고한 선도 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사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득남
대표

앞으로도 두텍은 고객뿐 아니라 고객의 고객께도 만족을 드리기 위한 핵심기술과 최상의 품질로 21세기 환경시대의 선도적 기업으로 함께 할 것이다.

◆ 신입·경력사원 채용공고

· 모집 부문 - 하드웨어 개발, 기술영업(국내, 해외)
영업지원(마케팅업무 포함)

◆ 문의 : (주)두텍 ☎ 031-495-3767

<http://www.dotech21.com>

민경선 명예기자<queen104@iansan.net>